

## 전통 결혼담과 결혼 담론에 나타난 이상적 여성상과 남성상

류정월\*

<차례>

1. 서론
2. 결혼담에 나타난 이상적 인간상
  - 1) 공개적 시험을 통해 새식구 고르기
  - 2) 우연한 만남을 통해 새식구 고르기
3. 결혼 담론에 나타난 이상적 인간상
4. 체(體)와 용(用)의 약호와 가족으로서 남성에 대한 정보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전통 혼례의 과정에서 생산된 결혼담과 결혼담론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던 여성상과 남성상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교적 관념에서 생각되는 이상적 인간상은, 구체적 삶의 지점에서 마련되는 이상적 인간상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념/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삶 속에서 남/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젠더 규율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전통 혼례에 대한 기존 연구는 혼례식의 순서, 의복, 폐백, 화장법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혼례 당사자들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혼례 당사자들 가운데 신랑과 신부를 '새식구'로, 신랑과 신부의 자질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주체'로 명명할 것이다.

새식구를 고르는 결혼담에는 공개적이며,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시험 유형과, 은밀하면서도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만남 유형이 있다. 결혼담에는 사위(남성)의 자질보다는 며느리(여성)의 자질이 손쉽게 시험·판단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 서강대

며느리의 자질은 객관적 시험의 대상이 되며, 시험자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면서 새식구가 결정된다. 반면 사위의 자질은 주관적 시험의 대상이 되며, 시험자의 의도는 뜻하지 않게 좌절하기도 한다.

여성이나 남성을 우연히 만나 새식구로 들이기를 결심하는 결혼담에서는, 시험을 하는 것처럼 필요한 자질들을 확실하게 검토할 수 없다. 우연하게 알게 되는 한 두 가지 자질들이 판단 기준이 된다. 이때 며느리 고르기가 ‘하나’라는 지엽적 면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위 고르기는 그의 전체적인 면모를 한 번에 조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엽적인 한 가지 자질을 통해 다른 자질을 추론하는 것에 비하면, 한 눈에 사람의 전체적인 자질을 조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인지감(知人之鑑)이 아니고는 한 눈에 총체적인 면모를 알아보기 어렵다. 새식구로서 남성의 자질은 지인지감을 가진 특별한 이의 판단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반면 새식구로서 여성의 자질은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 대상이 된다. 여성이 이인(異人)으로서,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여성이 가진 자질의 특별함을 판단할 수 있는, 여성을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주관적이거나 신비한 직관을 통해 남성의 자질이 판단된다는 것은, 남성의 자질을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이 여성에 비해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소통되지 않았을 정황을 가정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상학, 『계녀서』, 남녀 교육 등 보다 넓은 담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러한 가정을 검토한다. 이어서 이 논문은 결혼담과 결혼담론에 나타나는 이상적 여성상과 남성상을 체와 용의 관점으로 읽어 낸다. 또한 새식구로서 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풍부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소통되는 데 비해, 새식구로서 남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은 거의 마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다.

**주제어** 결혼담, 결혼 담론, 이상적 인간상, 새식구, 시험, 우연한 만남, 지인지감(知人之鑑), 이인(異人), 체(體), 용(用).

## 1. 서론

이 논문은 전통 혼례의 과정에서 생산된 결혼담과 결혼담론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던 여성상과 남성상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교적 관념에서 생각되는 이상적 인간상은, 구체적 삶의 지점에서 마련되는 이상적 인간상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념/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삶 속에서 남/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젠더 규율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전통 혼례에서 신랑과 신부는 혼담(婚談)을 거치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택된 인물이다. 혼담은 ‘매과’, ‘중신애비’, ‘중신애미’로 불리는 중매인이 처녀총각의 집을 드나들면서 성사시킨다. 양반집에서는 신랑·신부의 아버지나 조부가 지인들과 편지 왕래를 통해 혼담이 오가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전통 혼례에는 새 식구를 맞기 위해, 이상적 여성과 남성의 자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전통 혼례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혼례식’이라는 의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의식이 주된 연구 대상이기에, ‘사람’에 대한 연구보다는 혼례식의 절차나 양식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전통 혼례에 대한 연구는 혼례식의 순서, 의복, 폐백, 화장법 등에 대한 연구에 밀려 혼례 당사자들에 관한 연구를 등한시한 감이 있다. 혼인의 과정에서 선택된 새 식구는 아들이나 딸을 위한 최고의 배우자감은 아닐 수 있지만, 각자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최선의, 혹은 최적의 배우자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 혼례에서 이상적 새식구로 생각되던 여성의 자질과 남성의 자질에 대해, 그리고 그것들이 판단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자질을 판단하는 주체는, 전통 혼례에서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친척이나 지인)이다. 전통 혼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에

의해 새식구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혼례 당사자들 가운데 신랑과 신부를 ‘새식구’로, 새식구의 자질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주체’로 명명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 혼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전통 혼례는 왕실의 가례(嘉禮)나 가정의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일부로 연구되었다. 전통혼례를 이루는 물적 요소들인 음식이나 화장에 관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전통 혼례를 구성하는 제도, 세부적 절차,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도 있다.<sup>1)</sup> 이상의 논의는 혼인의 당사자와 가족들의 심적 측면보다는 혼례식의 물질적 혹은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문학적 연구로는 혼사장애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혼사장애를 겪는 주인공들은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 이를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결혼에 이른다. 이에 대한 연구는 개별 텍스트들에 나타나는 혼사장애를 살펴보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sup>2)</sup> 혼사장애에

- 
- 1) 신혜성, 『한국과 중국의 전통혼례복식에 관한 연구: 18~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여대 의류직물과, 박사학위논문, 2006, 정복희, 『연지화장 연구: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충남대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정승근, 『전통혼인음식에 관한 연구: 폐백·이바지 음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생활과학대, 석사학위논문, 2004, 임귀희, 『한국전통혼례의 예학적 탐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9, 윤진아, 『혼례의 함보 내기와 폐백례에 관한 연구: 예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생활과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김종명, 『한국의 혼속연구』, 대성문화사, 1981. 안병태, 『의식주, 관혼상제, 민속 이론』, 교문사, 1988. 이순홍, 『한국전통혼인고』, 학연문화사, 1992.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정종수, 『혼례의 절차 및 의미에 대한 고찰』, 『민속학연구』 6호, 한국민속학회, 이명자·박정숙, 『한국의 혼례문화와 혼례복식의 특성』, 『한국의복』 8권 3호, 한복문화학회, 2005. 김신연, 『궁중과 사대부가의 혼례 풍속 비교 연구』, 『문명연지』 6권 3호, 한국문명학회, 2005. 이광규, 『조선후기 혼인 습속과 혼례 절차』, 『역사비평』 25호, 역사문제연구소, 1994.
- 2) 조은희 『고전 여성양용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 박사학위 논문, 2005, 139~140면. 한양하, 『<도량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혼사장애와 시련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30집, 67~99면.

대한 논의 역시 결혼을 성인이 되는 과정의 일부로 보고 그 세부적 단계를 추출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혼례 당사자들이 혼인의 과정에서 가지는 관념이나 정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고전 서사 문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고전 소설과 일기 문학 등에 드러나는 전통적 '결혼관'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주로 개별 텍스트 혹은 유사 텍스트군에 드러나는 결혼의 양상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는데, 전통/현대, 천명/자유의지 가운데에 전통적이면서 천명에 입각한 결혼관을 추출하고 그 한계를 언급하였다. 결혼 '관념'보다는 결혼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는 며느리설화 대한 연구가 있다. 전체로서 며느리담에 대한 연구는 결혼 전후 며느리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이야기군을 분류하는 작업에 주로 천착하였다.<sup>3)</sup> 드물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신부의 자질을 연구한 논의도 있다. 이는 주로 며느리가 가져야 하는 경제적 자질에 대해 언급하면서, 며느리에게 기대되었던 현실적 측면을 밝혔다는 데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적 신부감 뿐만 아니라 이상적 신랑감에게 기대되는 자질을 모두 조망하고자 했던 논의로는 박현숙의 것이 있는데,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성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혔다<sup>4)</sup>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화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의 연구 결과는, 특정 자질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자질과의 분석적 관계를 설정하는 데 미흡하며, 구체적 시대나 문화를 통해 그것들의 의의와 위상을 조명하는 작업까지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손문숙, 「며느리 설화의 여성주의적 양상」, 동남어문학회, 『동남어문논집』, 19집, 2005, 손문숙, 「며느리 설화의 서술 방식과 서사 요소」, 동남어문논집, 제14집, 동남어문학회, 2002.

4) 박현숙, 「설화에 나타난 '새식구 들이기'에 대한 두 가지 시선」, 『구비문학연구』 3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20.

본 연구에서는 결혼식의 절차나 제도라는 물적 요소보다는 신랑과 신부가 가지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질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우연히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찾는 텍스트보다는 결혼을 전제하고 의도적으로 이들을 물색하는 텍스트를 선정할 것이다. 설화에서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은 치부(致富)와 함께 대표적인 결말 가운데 하나이다. 우연한 만남이 결혼으로 귀결되는 설화들을 모두 다룰 경우 텍스트의 양이 방대해진다. 자녀를 결혼시키고자 하는 주체의 의도와 욕망이 드러난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연구 범위를 한정하는 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새식구의 자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결혼담뿐만 아니라 결혼 담론도 연구 대상으로 다룰 것이다. 이상적 인간상은 서사 텍스트 내에만 제한되어 마련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콘텍스트가 있을 것이다. 콘텍스트 역시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것들을 관통하는 약호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상적 인간상의 최종적 의미에 좀 더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결혼담에 나타난 이상적 인간상

### 1) 공개적 시험을 통해 새식구 고르기

처부모가 사위감을 고르고 시부모가 며느리감을 고르는 전통 혼례의 과정은 결혼담 내에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시험을 통해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을 맞아들이기도 하고, 우연한 만남으로 새식구를 선택하기도 한다.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을 들일 목적으로 후보자들을 시험하는 설화들에

는 여러 후보자들이 등장한다. 후보자들 대부분은 시험에 실패하고 마지막 한 사람만이 성공하여 사위나 며느리가 된다. 의도적인 시험이 아니라 자손의 결혼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우연한 만남이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을 고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설화 가운데에 이인(異人)이 사위를 고른다든지, 지나가다가 샘에서 만난 처녀를 며느리로 들인다든지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첫 번째 유형은 공개적이며,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공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두 번째 유형은 은밀하면서도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연한 만남에 의해 새식구를 들이는 유형은, 시험을 통해 들이는 유형에 비해 텍스트 수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 들이는 유형과의 차이점 혹은 유사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누락시킬 수 없는 부분이다.

먼저 시험을 통해 며느리감과 사위감을 고르는 이야기를 살펴보자. ‘며느리 고르기 설화’와 ‘사위 고르기 설화’는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시퀀스만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며느리 고르기 설화’의 시퀀스

- ① 어떤 부자가 쌀 서 말을 가지고 세 식구와 석 달을 지내면 며느리로 삼겠다고 한다.
- ② 여러 처녀가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다.
- ③ 한 처녀가 쌀 서 말로 석 달을 지내는 데 성공시킨다.
- ④ 성공한 처녀가 며느리가 된다.

‘사위 고르기 설화’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하위 유형이 있는데, <거짓 말 세 마디>, <끝없는 이야기하기>, <수수께끼 내기>로 사위를 고르는 이야기들이다.

‘사위 고르기 설화’의 시퀀스

- ① 어떤 부자가 거짓말 세 마디를 하는 사람 혹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긴 사람 혹은 끝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한다.
- ② 여러 총각들이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다.
- ③ 한 총각이 거짓말 세 마디를 하거나 끝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긴다.
- ④ 성공한 총각이 사위가 된다.

‘며느리 고르기 설화’와 ‘사위 고르기 설화’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①은 시험의 시작 ②는 대다수의 실패 ③은 한 사람의 성공 ④는 성공의 결과로 환원할 수 있다. 이 이야기들에서 시험의 결과로, 실패의 항(②)과 성공의 항(④)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항에서 성공한 사람의 자질과 실패한 사람의 자질을 대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며느리 고르기 설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서 실패한 처녀들은 쌀 서말을 가지고 어떻게 정해진 시간 동안 먹고 살까를 고민한다. 반면 성공한 처녀는 쌀 서말을 가지고 밥을 해 먹은 다음 노동을 해서 돈을 번다. 실패한 처녀들이 수동적으로 끼니를 잇는 것만을 생각하는 반면 성공한 처녀는 끼니를 버는 데에 목적을 둔다. 성공한 이들이 적극적으로 끼니를 벌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생계 기술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이 처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종들이나 집안사람들과 함께 한 일을 보면 나무 해다가 팔기, 나물 뜯어다가 팔기, 바느질, 빨래, 물레질, 씨아질, 길쌈, 음식 만들기, 방앗간에 가서 싸라기 얻기 등 다양하다.<sup>5)</sup>

‘사위 고르기 설화’의 시험은 ‘며느리 고르기 설화’의 시험보다 그 양상이 다양하다. 거짓말을 잘 하거나 끝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수수께끼를 맞

5) 최운식, 「며느리감 고르기 설화」에 나타난 부자 며느리의 조건과 경제의식, 한국민속학 41집, 2005, 472면.



히는 것이 시험의 내용이다. 시험의 주체가 낸 각각의 과제에 따라 많은 총각들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끝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수수께끼 내기를 하기도 한다. <거짓말 세 마디>에서는 많은 총각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시험의 주체는 두 번째까지만 거짓말이라고 인정한다. 하루는 한 총각이 와서 세 마디 모두 거짓말로 인정받는데 성공한다. 그 수법은 여러 가지이다. 종이를 보여 주며 전에 빌려갔던 차용증서라고 하거나,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으러 왔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다. 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면 딸을 주어야 하고, 참말이라고 하면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sup>6)</sup> <끝없는 이야기하기>로 사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sup>7)</sup> 성공한 총각들은 쥐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sup>8)</sup> 쥐가 계속해서 강에 빠져 죽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sup>9)</sup> 쥐가 조선에서 북만주까지 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sup>10)</sup>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사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성공한 총각은 “내가 일어서겠느냐, 안 일어서겠느냐?” 혹은 “이 길로 걸어가겠느냐, 아니냐?”하는 수수께끼를 내고 사위가 된다.<sup>11)</sup>

6) <거짓말 세 마디> 이야기는 『한국 구비문학대계』에서 29편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자료는 <거짓말 잘하는 사위>, 『대계』 1-2, 525~526면, <거짓말 세 마디>, 『대계』 1-4, 77~80면, 674~676면, 719~721면, <거짓말 세 마디로 장가 든 사람> 『대계』 2-7, 125~127면, <거짓말해서 장가든 총각>, 『대계』 2-7, 454~457면, <거짓말 세 마디로 팔자 고친 사람>, 『대계』 3-2, 560~568면, <거짓말 하나 하고 부자집 사위가 된 이야기> 『대계』 3-3, 276~277면 등이다.

7) <끝없는 이야기>, 『대계』 1-1, 815~818면, <이야기로 사위 삼기>, 『대계』 1-4, 803~804면, <듣기 싫도록 한 이야기>, 『대계』 2-2, 368~371면, <끝없는 이야기>, 『대계』 2-6, 339~341면, <이야기 시험>, 『대계』 4-2, 108~109면, <거짓말 잘하는 사위연기(끝없는 이야기)>, 『대계』 2-6, 339~341면, <이야기를 잘하는 사위>, 『대계』 7-9, 316~317면.

8) <이야기를 잘하는 사위>, 『대계』 7-9, 316~317면.

9) <끝없는 이야기>, 『대계』 1-1, 815~818면.

10) <듣기 싫도록 한 이야기>, 『대계』 2-2, 368~371면.

11) <얘기로 사위 삼기>, 『대계』, 1-6, 120~124면, <궁리깊은 사위>, 『대계』 2-5,

거짓말을 하거나 끝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수수께끼를 내서 이긴다는 것은 이들이 가지는 지적 특별함을 보여준다.<sup>12)</sup> 이 작업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거짓말 세 마디나 끝없는 이야기,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기거나 성공하는 총각들을 구하고자 했던 주체의 의도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구연자들에 따라서는 이들이 소견이 넓다거나 궁리가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sup>13)</sup>

성공한 처녀나 성공한 총각은 모두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머느리 들이기 설화와 사위 들이기 설화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성공한 처녀가 경제적 관점에서 긍정되는 데 비해 성공한 총각은 지적 관점에서 긍정된다는 것이다. 처녀가 가지는 경제적 관점의 장점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길쌈을 하거나 나물을 뜯어 장에 내다 팔거나 한다. 구체적 기술이나 노동력을 가진 것이다. 반면 성공한 총각은 지

205~207면.

12) 거짓말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하은하는 설화를 전승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한다는 것을 '머리가 영리하거나 의견이 넓고 궁리가 많은 사람을 나타내는 징표'이다. 하은하, 「〈거짓말 세 마디〉의 서사적 특징과 그 문학치료적 효용」, 『고전문학과 교육』 13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년, 324~325면. 심우장은 "거짓말을 준비해서 통과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사위가 되어도 될 만큼의 지적인 폭과 깊이를 지녔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심우장, 「거짓말 딜레마와 이야기의 역설-〈거짓말 세 마디로 장가든 사람〉의 이해-」, 『구비문학연구』 2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315~316면. 강성숙 역시 거짓말을 잘 하여 사위가 되는 인물들은 규범 바깥에서 통용되는 다른 차원의 재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이인(異人)'의 범주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강성숙, 「〈바보사위〉 설화 연구-바보 우행(愚行)의 의미와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고전여성문학연구』 13집, 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146면.

13)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건 머리가 영리하여 거짓말 잘 하지 둔헌 사람은 거짓말 못한다능 기지. (『구비문학대계』 4-5, 907면) 본래 예전에는 도망질 잘 하고 거짓말 잘 하는 놈하고 이진(소견)이 제일 널러요. (『구비문학대계』 7-11, 598면.) 심우장, 앞의 논문, 재인용.

적 관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성공한 처녀가 기술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한 총각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며느리 고르기 시험을 거친 여성이 가지는 자질이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면 사위의 자질은 말을 통해 드러난다. 며느리의 시험이 행동과 기술을 통해, 비교적 구체적 지표를 가지고 드러나는 데 비해, 말을 통해 드러나는 사위의 자질은 상대적으로 추상적 지표를 가지고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공한 처녀와 총각의 자질이 다른 이유는 시험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며느리 고르기 설화는 한 달 간의 시험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만약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자집 영감의 며느리 선발을 따라해 볼 수 있고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며느리감에게 필요한 자질은, 일정한 과정을 거친다면 누구에게나 검증될 수 있는 것이다.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길쌈이나 바느질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조금만 관찰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사위 고르기 시험은 거짓말하기, 수수께끼 내기, 끝없는 이야기하기 등인데, 거짓말의 여부, 수수께끼의 적합성 여부, 이야기의 종결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에는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 후보자를 사위로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장인들은 주저하기도 한다.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해서 그를 사위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의 주체인 장인이 사위의 세 번째 거짓말 인정해야 하는 순간에 기뻐하기 보다는 난처해하는 하는 것은 이 시험이 시험자의 의도를 벗어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대변하는 부분이다. 이는 바로 사위의 지적 자질과도 연관된다. 지적 자질의 특별함은 어떤 객관적 잣대로 잴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잣대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며느리감을 구하는 시험은 구체적인 자질을 시험하는 객관적 시험인 반면, 사위감을 구하는 자질은 모호하기는 하지만, 추상적 자질을 시험하는 주관적 시험이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시험 사이에는 또 다른 차

이가 있다. ‘며느리 고르기 설화’에서 시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모자라거나 재산을 지키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혹은 집안의 흥망성쇠는 주부에게 달려 있기에<sup>14)</sup> 적당한 며느리를 찾기 위해 여러 처녀들을 시험한다. 시아버지는 의도에 부합하는 며느리를 맞게 되고, 이 사실에 기뻐한다. 여성이 거치는 시험에서 시험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해 보이며, 성공한 여성은 그러한 시험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자질을 가진다.

며느리가 치른 시험은 정답이 있는 시험이라면, 사위가 치른 시험은 정답이 있기 힘든 시험이다. 거짓말 세 마디나, 끝없는 이야기, 수수께끼 시험 등을 하는 장인의 목적은, 며느리 시험을 하는 시아버지의 목적만큼 분명하지는 않다. 사위를 고르는 데 그러한 자격을 시험하는 이유가 명시된 텍스트는 적을 뿐만 아니라 시험자에 따라 다른 이유를 대기도 한다. 이를 통해 보건대 결혼담에는 사위(남성)의 자질보다는 며느리(여성)의 자질이 손쉽게 시험·판단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우연한 만남을 통해 새식구 고르기

시험을 통해 며느리나 사위를 구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우연한 만남을 통해 사위나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들도 있다.<sup>15)</sup> 시험을 통해 새식구를 구하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비교적 오랜 시간 알아보는 방식이라면, 우연한 만남에 의해 새식구를 들이는 이야기는 단 시간의 만남으로 새식구의 자질을 간파하는 방식이다. 이때 사위감과 며느리감의 자질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며, 짧은 시간 그것이 어떻

14) 최운식, 앞의 논문, 465면.

15) 이들 이야기에서 사위나 며느리를 얻는 부분은 이야기의 초반부로 기능하며 이후에는 이들과 관련된 다른 사건이 더 부가된다. 여기에서는 사위나 며느리를 얻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다.

게 간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판서 신임은 지인지감(知人之鑑)이 있는 사람이었다. 신임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다. 홀로 된 며느리는 틈이 날 때마다 시아버지에게 손녀의 사윗감을 직접 골라주기를 청하였다. 그는 신임에게 “수명은 팔십까지 해로하고, 지위는 대관(大官)에 이르며, 가세는 부유하고, 아들을 많이 낳을 사람[壽至八十偕老 位之大官 家富而多男]을 구해달라고 한다. 신임이 어느 날 길을 지나다가 십 여 세 쯤 되는 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는, 머리는 쭉대같이 흐트러졌고 죽마를 타고 좌우로 뛰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공이 가마를 멈추고 찬찬히 바라보니, 옷이 몸을 가리지 못했으나 눈과 입이 매우 컸으며[河目海口] 골격이 비범하였다. 그 아이의 집안은 매우 가난했고 홀어머니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신임은 혼인을 결정한다. 며느리가 계집종을 통해 사위감의 집안 사정과 생김새를 알아보았다. 며느리는, 계집종에게 사위될 사람의 집안이 몹시 가난하고 생김새도 못났다는 말을 듣고 결혼을 꺼리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사윗감은 유척기(兪拓基)로, 나이는 팔십을 누리었고, 지위는 영상에 이르렀으며, 아들은 넷을 두었다. 가세 또한 부유하였다.<sup>16)</sup>

② 동고 이준경의 청지기 가운데 피가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이준경이 어려서부터 늙도록 그에게 시중을 들도록 하였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준경에게 사위를 얻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딸이 16세가 되도록 사위를 구했다는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이준경이 대궐에서 돌아와서 “오늘 아침에 네 사윗감을 얻었으니 속히 불러 와야겠다.”고 하면서 “육조 거리에 가면 경조부 앞에 빈 섬으로 몸을 가리고 앉아 있는 총각 하나가 있을 게다. 틀림없이 불러오너라.”라는 것이다. 청지기는 놀라움을 이길 수 없었다. 이준경이 즉시 분부를 하므로 부득이하여 그 자리에서 맞아 갔다. 그 총각을 행랑채 아래 데려다가 몸을 씻겨서 옷을 입혔다. 이튿날 혼례를 치르는데 온 집안 사람들이 몰래 웃었다.<sup>17)</sup>

16) 이희준 편찬, 유화수·이은숙 역,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491~493면.

앞서 시험을 통해 새식구를 얻는 이야기들과는 달리 여기에서 사위를 얻는 과정은 매우 갑작스럽다. 이들의 선택이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사위감의 선별 이유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①에서 신임(申鎰: ?~1725)이 손녀의 사위감을 고른 이유나, ②에서 이준경(李浚慶, 1499~1572)이 청지기의 사위감을 고른 이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사위를 고르는 주체들이 지인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되는 듯하다.<sup>18)</sup> 지인지감은 현눈에 사람을 보고 특별한 자질을 알아보는 능력인데, 이것은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알려 준다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인지감은 설명이 불가능한 능력이며, 이를 통해 사위를 선별하는 과정은 텍스트에 잘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지인지감을 가진 이들의 안목은 일반인들의 안목과는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선택된 사위감에 대해, 일반인들이 내리는 판단에서 드러난다. ①의 이야기에서 며느리나 여종은 사위감의 집안이나 생김새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가진다. ②에서 청지기 역시 사위감을 보고 놀라며, 집안 사람들은 사위를 비웃는다. 이들의 판단이 '상식'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신임이나 이준경의 판단은 '비상식'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텍스트 전개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신임이나 이준경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인지감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은 비상식적인 것이지만, 이상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뛰어난 것이다.

지인지감이 있는 사람이 선택한 사위에게는 상식적 판단으로는 알 수 없는 자질이 있다. 앞서 ①의 이야기의 뒤에는 유척기(兪拓基: 1691~1767)

17) 『기문총화』 2권 254화.

18) ①의 이야기의 경우, 신임의 지인지감에 대해서는 텍스트에 명시된다. ②의 이야기의 경우, 이준경의 지인지감에 대해서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준경이 선택한 청지기의 사위가 이인이라는 점, 임란의 발발을 예상하고 그에게 자신의 식구를 부탁하는 점을 보면 이준경 역시 지인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수 있다.

와 관련된 두 가지 일화가 더 있다. 하나는 성욕이 매우 강해서 신부와 매일 동침을 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임이 유척기를 불러 먹을 주자, 큰 것을 백 여 개 골라 선취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일화는 조금 길다. 먹을 받은 유척기는 즉시 서실로 돌아가서 하인들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었다 나누어주었다. 뒷날 유척기는 신임이 했던 것처럼, 자기의 사위에게 먹을 가져가게 한다. 그 사위는 큰 먹 두 개, 중간 먹 두 개, 작은 먹 다섯 개를 가져가면서 자신은 열 동이면 넉넉히 쓸 수 있다고 했다. 유척기는 사위에게 “뽀뽀하기는 둘째 가라면 서럽겠구나. 그저 음관이나 할 재목이로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대로 되었다.<sup>19)</sup> 자신이 쓸 먹만을 알맞게 챙기는 사위의 행동은, 주변의 하인들을 위해 큰 먹을 챙긴 유척기의 배포와는 다른 것이다.

이런 일화들은 유척기가 보통 사람과 다른 성욕과 배포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남다른 ‘생명력’, ‘기상’과 관련될 수도 있겠다. 이것들은 모두 상식적 판단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유척기의 경우에 바로 그런 자질이 ‘수부귀다남자(壽富貴多男子)’를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신임은 쭉대머리에다가 눈과 입이 큰 세 살 남자이이를 보고 수부귀다남자의 ‘생명력’, ‘기상’을 느꼈던 것이다. ②의 이야기 뒤에도 피가 사위와 관련되는 두 가지 일화가 더 있다. 하나는 이 사위가 이준경의 죽음을 예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한 것이다. 이 사위는 장사를 한다고 장인에게 돈을 얻어 가는데, 알고 보니 산골에 살림을 장만하여 두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이 나자 그는 자신의 식구들과 이준경의 식구들을 그곳으로 피난시킨다. 이준경은 거지와 다름없는 청년에게서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식견’을 보았던 것이다.

지인지감을 가진 남성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19) 『기문총화』 2권, 212화.

차지하는 경우는 자신의 능력을 가족과 혈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sup>20)</sup> 지인지감의 능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가 사위감을 고르는 것이다.<sup>21)</sup> 이들이 고르는 사위들은 특별한 기상이나 특별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 이 ‘기상’은 성격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식견’은 지적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성격이나 지식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폭넓은 외연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특수한 자질이다.

지인지감을 가진 이들은 이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인들이 며느리감을 고르는 일에 지인지감을 발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이인 가운데에는 여성 인물도 있으며 며느리도 있다. 이인 며느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 과정에서 그들의 특수한 자질이 부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인 여성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누군가의 며느리 혹은 신부로 등장한다.<sup>22)</sup> 이들은 남성 이인들처럼 미래를 예견하고 대비한 결과 치가(治家)와 구국(救國)에 성공한다.<sup>23)</sup> 또한 이들은 남성 이인들처럼 사위감을 고르는 데 지인지감을 발휘하기는 해도, 며느리감을 고르는 데 지인지감을

20) 최기숙, 「이인(異人), 소수 문화, 그 차별적 전략과 동화의 처세술」, 『한국문화연구』 3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2, 257면.

21) 「소대성전」 같은 영웅소설에서도 정혼의 과정이 장인 될 사람의 지인지감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소대성의 가난한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장모는 딸을 다른 곳에 시집보내기 위해 자객을 이용해서 소대성을 죽이려고 한다.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158~159면. 고전소설에서도 지인지감을 가지는 것은 대부분 장인이나 신부의 남성 친척들이다. 이들에게 선택된 사위감은 다른 이들의 눈에 매우 초라하게 보인다. 「소대성전」에서는 장모가 소대성을 음해(陰害)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은 장인과 장모가 소대성을 판단하는 시각차가 극명함을 보여준다. 지인지감으로 인한 사위 선택 결과는 일반인들, 특히 여성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표현된다.

22) 혹 결혼 과정이 있기는 해도 외모가 못생겨서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이는 것이지 그들이 이인임을 알고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3) 김희정, 「며느리 설화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2000, 44면.



발휘하지는 않는다. 지인지감이 있는 여성 주체와, 남성 주체 모두 며느리감을 고르는 데에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어떤 여성이 특수한 자질로 인해 며느리감이 되는 이야기는 결혼담 전체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을 새식구로 들이는 데에는 그녀가 가진 이인으로서의 아우라 같은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인 며느리에 대해서는 못 생겼다는 등의 신체적 결함이나 고집이 세다는 등의 성격적 결함이 강조되어 표현된다.<sup>24)</sup>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이인 며느리가 스스로 신이한 능력을 드러내기 전까지, 그녀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보통보다 못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 있을 수 있으나 혼례 과정에서 그러한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은 부재했음을 알려준다.

우연한 만남을 통해 며느리감을 고르는 이야기로는 우물가에서 만난 처녀를 며느리로 들이는 이야기가 있다.

민정승이 직접 며느리감을 구하고자 어딜 가니 반달 같은 아가씨가 우물로 물을 길러 왔다. 정승이 물을 청하니 처녀가 바가지에 물을 떠 옆의 버들잎을 띄워 주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 급하게 드시면 체할까봐 그렇게 했다고 한다. 정승은 이 처녀가 마음에 들어 상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삼았다. 그런데 여자가 첫날밤에 방귀를 뀌자 신랑은 기분이 나빠 색시를 소박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 성장하자 자기는 왜 아버지가 없는가를 물었다. 여자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민정승댁 아들이 아이의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니, 아이는 돈을 조금 가지고 서울로 가 민정승댁 집에 머물면서 저녁에 심어 아침에 소배기를 먹을 수 있는 오이씨를 심는다 했다. 씨에서 싹이 나지 않자 정승이 나무랐다. 아이가 방귀를 뀌 적이 없는 사람

24) 김희정, 위의 논문, 47~47면.

이 심어야만 한다고 하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아이는 그렇다면 왜 우리 어머니는 첫날밤에 방귀를 끼었다고 소박을 했느냐고 했다. 정승은 사실을 알고 며느리를 데려오게 했다. 아이는 후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sup>25)</sup>

샘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버들잎이 떠 있는 물을 대접받는 이 이야기들은 ‘버들잎화소’라고 불리기도 한다.<sup>26)</sup> 이 이야기들 대부분은 남성이 여성 배우자를 고르는 진행 과정을 가진다. 또 역사적 인물인 이성계나 왕건의 이야기와 결부되기도 한다.<sup>27)</sup> 이 이야기에서 민정승은 처녀에게 버들잎을 띄운 이유를 묻는다. 처녀는 “급하게 드시면 체할까봐” 띄웠다고 대답한다. 정승은 처녀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며느리로 삼는다.

이 며느리의 선발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며느리를 들이고자 한 민정승이 우연하게 샘가에서 한 여성을 만나고 그녀의 자질이 마음에 들어 며느리로 들인 것이다. 그러나 지인지감으로 사위를 선택한 앞의 이야기와는 달리 여기에서 며느리를 선택한 이유는 비교적 쉽게 짐

25) 『한국구비문학대계』 1-4, 경기도 남양주군·의정부시편, 742면. 이야기 요약은 이수자, 『설화에 나타난 ‘버들잎 화소’의 서사적 기능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2권, 한국구비문학학회, 1995, 15면 재인용.

26) <저녁에 심어 아침에 따먹는 오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다. 혹은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먹는 오이>로 전승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줄거리는 흔히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첫날밤에 방귀를 끼어 남편이 소박을 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성장하자 자기는 왜 아버지가 없는가를 물었다. 사정을 듣고 난 아이는 부친의 집에 찾아가 오이씨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잘못을 일깨우고, 부모를 다시 재결합하게 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자료에는 버들잎 화소가 나타나지 않는데 반하여 소개한 내용에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구하는 데 이 화소가 수용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수자, 앞의 논문, 16~17면.

27) 시아버지가 며느리감을 고르는 과정에서 버들잎 화소가 나타나는 경우 많지는 않다. 그러나 버들잎 화소는 매우 자주 등장하는 화소이며, 버들잎을 띄운 처녀가 가지는 자질은 그 판단 주체가 남편 될 사람인가, 시아버지 될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작 가능하다. 처녀의 구체적인 행동이 정승의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며느리감은 정승이 말하지 않은 상황(급하게 말을 달려와 몹시 갈증이 나는)까지도 고려하면서 타인을 배려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인지감으로 얻은 사위는 대범한 기상 혹은 미래에의 식견을 가졌다. 이것은 총체적 자질이며 대사회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물에 버들잎을 띄운 며느리를 얻은 이야기에서 며느리의 자질은 사람에게 대한 배려이다. 이는 중요한 자질이지만, 총체적인 자질이라기보다는 지엽적 자질이며, 대인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지엽적 자질을 보인 처녀가 며느리가 될 수 있었을까? 주체가 그러한 자질을 통해 처녀의 전체 인품이나 현명함 등을 짐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연히 사위를 고르는 방식과 며느리를 고르는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우연한 만남에서는 주체가 새식구 될 사람에 대해 알게 되는 한 가지 특성만을 강조하게 되어 있다. 이때 며느리를 고르는 방식은, 여성의 지엽적 면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위를 고르는 방식은 전체적인 면모를 한 눈에 조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한 눈에 사람의 전체적인 면모를 조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인지감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지인지감으로 사위를 들이는 과정에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며 신비한 지점이 있다. 이에 비해 버들잎을 띄우는 여성을 보고 인품이나 현명함을 추론하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에 속한다.

또 다른 차이도 있다. 지인지감으로 얻는 사위들의 특별한 자질은 두 가지 일화에서 드러난다. 이 후일담이 있기 전까지 사위들의 특별한 자질은 의문에 붙여진다. 사위가 가진 자질은 훗날을 대비한 자질이다. 반면 며느리가 가진 자질은 바로 그 당시 필요한 자질이다. 이는 사위가 미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며느리가 현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결혼 담론에 나타난 이상적 인간상

배우자로서 이상적 남성상이 추상적·전체적 측면으로 파악되는 반면 여성상은 구체적·실제적 측면에서 파악된다. 남성에게는 전반적인 기운이나 분위기가 긍정적이냐 여부가 중요하다면 여성에게는 구체적 능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새식구로서 남성에게는 미래의 가능성이, 여성에게는 현재의 필요성이 투영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성의 자질은 일반인이 조금만 관찰하면 알 수 있지만 남성의 자질은 지인지감이 아니고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전체적인 면모, 추상적 자질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접적 대면이 거의 불가능하고, 중신아비를 통해 짧은 시일 내에 사람을 판단해야하는 전통 혼례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은 잘못된 평가를 도출할 수 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측량이 가능한 자질을 중시하는 며느리 고르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적다. 바보 며느리 이야기는 거의 없지만 바보 사위 이야기는 많은 설화판의 불균형은, 사위와 며느리를 들이는 데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상적 새식구의 성별에 따라 다른 기대치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바보 며느리 설화와 바보 사위 설화의 비대칭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태평한화골계전』에는 다음과 같은 바보 사위 이야기가 있다. “어떤 부자집에서 좋은 사위를 택하려고 했다. 같은 마을 양반집 아들이 얼굴이 해말깡고[皙白] 헌걸차고[頎長] 키가 컸으며, 어지럽거나 바람 피우는 일이 없으니, 모두들 말하길,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므로 부자집에서 통혼하여 사위를 삼았다.<sup>28)</sup> “헌걸차다”라는 전체적인 모습이나 “덕”이라는 추상적 요소가 사위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된

28) 『태평한화골계전』 2권, 222화.

사위는 먹을 것만 밝히는 바보였다. 그는 화장실 냄새 제거를 위해 가져다 놓은 대추까지 홀랑 집어 먹는다. 전체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사위를 얻다보니 구체적인 자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결혼담에서 살펴본 바, 새식구로서 이상적 남성상의 경우에는 그의 구체적 능력, 기술보다는 지적 능력, 기상이나 식견 등의 신비하고 미래 지향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상적 여성상의 경우에는 현재 실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능력, 기술이나 타인에의 배려심 등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상의 정황은 콘텍스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통 혼례에서 혼담이 오고가면 ‘간선’이라 하여 신부감을 선보는 풍속이 있었다. 중매를 통해 신부감과 신부집안 내력은 알 수 있었지만, 신부감의 인품과 관상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위장을 하면서까지 신부의 관상을 보고자 했는데, 여성의 상에 따라 관계한 남성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다산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믿었다.<sup>29)</sup>

18세기 자료인 『증보산림경제』에는 부인 상 보는 법이 있다. 이는 “섭생(攝生)”의 하위 항목이다. 부인 상 보는 법은 크게 길상과 흉상으로 나누어지는데, “길하면 남자가 범해도 유익함이 많고, 흉한데 남자가 범하면 생명을 해치고 수명을 줄이게 되니, 경계”하기 위해서이다. 이어 여성의 머리, 얼굴, 목의 길이, 이와 입술, 눈동자, 코의 모양 등 얼굴 전체의 모습을 대상으로 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한다.<sup>30)</sup>

조금 더 후대 자료인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는 상고로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조선의 점복 습속이 망라되어 있다.

29) 정성희, 『조선의 섹슈얼리티: 개정판』, 가람기획, 2009, 37면.

30) 『증보산림경제』, 권7, (유중임 저, 『증보산림경제』, 2권 농촌진흥청, 2003, 77~78면).

여기에는 부인상 보는 법이 있는데, ‘귀자를 얻을 생[得貴子相]’이나 ‘귀자를 많이 나올 생[多生貴子相]’, ‘아들을 낳을 생[產子相]’이 중복되어 나온다. 이 가운데 아들을 낳을 상을 보면 “몸은 말랐으나 입술이 붉으면 아들이 있다. 인당이 평정하고 윤택하다.”, “여자는 혈색을 근본으로 한다. 이는 피부 안에는 혈액이 충만하고, 피부 밖에는 밝은 빛이 흐르는 것 같은 모양이 좋다. 또한 윤택이 나지 않으면 싱싱한 기운이 없다. 머리카락은 두터워야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31)</sup> 혈색이나 머리카락의 두께 등의 생물학적 조건들을 관찰하는 것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 아닐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성의 생김새를 보고 섭생이나 다산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로 관상학이 동원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관상학은 사람의 겉모습, 외형을 보고 속 모습, 내면을 알아차린다는 점에서 지인지감과 일견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관상학은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고 숙달할 수 있는 있는 것이다. 반면 지인지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며 배우거나 숙달할 수 없다. 관상학의 핵심은 세상의 모든 것은, 특성과 역할에 관계있는 필연적인 외형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외형을 통해 내면을 유추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인지감을 가진 이인이 외형과 내면을 어떻게 관련짓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설명이 불가능하다. 관상학자는 일종의 기술자이지만 지인지감을 가진 사람은 일종의 초인능력자, 이인(異人)이다.

새식구로서 여성에 대한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며, 체계화되어 있고, 일반인들에게도 소통 가능하다. 그것은 부인을 상보는 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계녀서』와 같은 텍스트로 표현될 수도 있다. 부인을 상보는 법은 간선의

31)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저, 김희경 역, 『조선의 점복과 예언』, 동문선, 1990, 220~221면.

기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송시열의 『계녀서』 같은 텍스트는 자주 볼 수 있는 결혼 담론 가운데 하나이다. 좋은 부인이 될 수 있는 여성의 자질은 구체적 혹은 지엽적인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해질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다. 좋은 부인의 자질을 가리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정보였다. 반면 사위를 상보는 법이나 장가가는 아들에게 주는 글로 『계녀서』와 같은 위상을 가진 것은 거의 없다. 이상적 사위의 자질을 고르는 방법은 결혼 담론 안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적다.

이상적 사위의 자질에 대한 일반적 정보가 적다고 해서 사위에 대한 정보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 혼담에서도 사위는 집안, 경제력, 인물, 급제 가능성, 인간관계(동향이나 동문) 등으로 선택되었다. 이런 기준이 사위 고르기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혼담이 오고가는 집안 사이어나 소통 가능한 특수한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일단 혼담이 오고가는 집안이라면, 급제 가능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준은 여성에게도 통용되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좋은 신랑감이나 사위감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 혹은 지침서 자체가, 좋은 신부감이나 며느리감에 대해 알려주는 경우들에 비해 적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혼담의 분석 결과를 통해 결혼 담론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상적 사위의 자질에 대한 정보 혹은 지침서가 빈곤하거나 부재하는 데에는 그들의 자질을 지나치게 추상화시키거나 신비할 정도로 총체화 시킨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이거나 지엽적인 세부로 분절 가능한 지식에 비해, 추상적이거나 총체적인 내용은 설명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 4. 체(體)와 용(用)의 약호, 가족으로서 남성에 대한 정보

우리는 결혼담과 결혼 담론에 대한 이상의 분석을 하나의 약호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남성을 판단하는 관점은 용보다는 체를, 여성을 판단하는 관점은 체보다는 용을 중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이는 중국의 송명학(宋明學)에서 사용되는 철학용어이다. 체는 본체적 존재로 형이상적(形而上的) 세계에 속하고, 용은 그것의 자기 한정적인 작용 및 현상으로 형이하적(形而下的) 세계에 속한다. 그러나 양자는 표리일체(表裏一體)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체를 떠나 용이 있을 수 없고 또 용이 없다면 체는 생각할 수 없다. 체용은 흔히 본체와 작용, 제일존재와 거기에서 파생된 속성, 또는 보편적·초월적 실체와 현상계의 구체적 존재자들, 실체와 현상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영어권에서 체용을 ‘Substance-Function’, ‘Substance-Phenomena’ 혹은 ‘Essence-Function’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sup>33)</sup>

새식구로서 남성을 판단할 때에는 지혜, 기상이나 식견과 추상적이고 전체적 자질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은 새식구로서 여성이 가지는 기술과 노동력, 대인적 자질 등에 비해서는 보편적·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위의 자질들은 잠재적인 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인이 얻은 사위들의 능력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입증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반면 이상적 여성들의 자질로는 보다 기능적이며 지엽적인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된다. 그러한 자질들은 현재적인 것이다.

32) 체는 용이 없으면 드러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대등하면서 비교적 분명한 약호로 해석하는 데에 무리가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체-용의 두 가지 개념을 유교적 틀에서 빌려 오기는 했으나 사적 전개 방식과는 별개로 실체-기능, 보편-특수, 잠재태-현상태의 대립으로 보고자 한다.

33) 김제란, 「중국철학에서의 ‘체용(體用)’ 개념의 변천 과정: 체용의 불교적 이해와 유학적 이해」, 『시대와 철학』 17권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42면.



남성은 용보다는 체를, 여성은 체보다는 용을 더 우위에 두고 판단하는 것은 혼례의 대상자들을 선별할 때 특히 유효화되는 약호이기는 하지만 유독 혼례식을 전후해서 생성되는 해석들만은 아니다. 혼례는 삶의 중요한 순간이기는 하지만 태어나서 자라는 삶의 연속성 내에 위치한다. 아들과 딸의 전통적 교육에서도 체와 용의 약호를 읽을 수 있다. 『증보산림경제』에서는 자식을 교육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에 대해 아들과 딸의 경우를 구분하여 언급한다.

아들을 낳아 아이가 무얼 좀 알게 되면 선(善)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만약 어리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았다가는 장성하고 나면 습관이 되므로 방심하지 않고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다. 가르치는 순서는 마땅히 『소학(小學)』에 의하여야 한다. 만약 사랑하면서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되 엄히 하지 않으면 허물어지듯 악에 복종하게 되니,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집을 폐망시키는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부형의 잘못이다.

딸을 가르치는 것은 대략 아들 가르치는 것과 같아서 잠시라도 쉬어서는 안 된다. 딸이 조금 자라서 무얼 좀 알게 되면, 곧 성품을 화평하게 가지고 언어를 유순하게 하도록 가르치며, 일체의 길쌈, 재봉과 음식 만드는 등의 일을 배워 익히게 하되, 잠시라도 한가하게 놀아서 나태한 습관이 자라도록해서는 안 된다. 노비를 때리고 욕하는데 버릇이 들고 수다스럽게 말을 함부로 하는데 익숙해지면, 성격이 경박하고 조급해져서 훗날에 무례하고 사납고 악독해진다. 입술과 혀를 가벼이 움직이면 남편에게 누를 끼치고 부모에게 욕이 미친다.<sup>34)</sup>

“무얼 좀 알게 되면”이라는 교육의 시점은 철이 들었을 때 혹은 소동이

34) 『증보산림경제』 11권.

원활히 가능할 때 등을 의미하며, 생의 처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아들의 교육은 “선(善)”이라는 근원적·원칙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딸의 교육은 성품, 언어 등, 기술, 습관 등의 다양한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딸의 교육에서 성품을 교육시키는 것은 ‘선’이라고 근원적, 원칙적 요소를 교육시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노비를 때리고 욕하는 버릇”과 같은 경박함, 조급함, 사나움, 악독함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딸에게 필요한 온화한 성품은 가정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처세술에 오히려 가깝다. 또한 딸의 교육에는 길쌈, 재봉, 요리 등의 기술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들의 교육이 선한 인간이라는 형이상학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딸의 교육은 형이하학적 인간상의 육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젠더에 따라 구별되는 이러한 인간관이 결혼담에서는 여성이 가지는 자질의 구체성과 지엽성으로, 자질의 확인 방식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상식적 용이함으로 나타나며, 결혼 담론에서는 다양한 담론 양식과 그 일반적인 소통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남성이 가지는 자질은 결혼담에서는 추상성과 총체성으로, 자질의 확인 방식에 있어서는 주관성과 비상식적 신비함으로 나타나며, 결혼 담론에서는 담론의 부재와 일반적 소통 불가능성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남성을 양으로, 여성을 음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남성은 적극적, 개방적, 활동적인 데 반해 여성은 소극적, 폐쇄적, 순응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담을 통해 보건대 여성과 남성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보는 관점은 다소 의문을 자아낸다. 때로 며느리들은 남성보다 적극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며느리 고르기 설화’와 같은 결혼담에서 여성들은 매우 적극적, 개방적, 활동적이다. 선택된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적극

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종들, 남편 될 사람, 심지어는 시대 어른들을 지휘하여 노동에 가담시키기도 한다. 체와 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적극성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결혼의 대상으로서 이상적 여성은 구체적 삶의 기술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는 ‘용’의 지엽적 자질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시험을 통해 새식구를 고르는 결혼담을 살펴보았다. 공개적 시험과 우연한 만남으로 새식구를 고르는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새식구의 자질에는 공통점이 있다. 며느리 시험을 거친 며느리의 능력, 즉 노동력·기술력은 그 성격 자체가 구체적이었다. 버들잎 며느리 설화에서 드러나는 며느리의 자질, 사람에 대한 배려는 구체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동력·기술력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마찬가지로, 총체적 자질이گی보다는 지엽적·부분적 자질이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반면 사위 시험을 거친 사위의 능력, 지적 능력은 그 성격이 추상적이면서 검증 여부를 초월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인지감으로 얻은 사위에게도 비슷한 지점이 있다. 이들 사위는 기상의 특별함, 식견의 특별함을 가진다. 이 역시 추상적 자질이며, 지적 자질과 마찬가지로 총체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질 뿐만 아니라 자질을 확인하는 방식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의미-형식 혹은 내용-틀의 관계를 가진다. 형식이나 틀이 의미나 내용을 규정하는 것처럼 자질의 확인 방식은 그러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질의 가능성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며느리의 자질은 객관적 시험을 통해, 혹은 지엽적인 것을 전체로 확대하는 상식적 방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인 며느리는 이러한 틀이나 형식 내에 수용될 수 없는 자질을 가진다. 반면 사위의 자질은 시험의 잣대를 넘어서면서, 혹은 지인지감이라는 신비하고 특수한 방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바보 사위의 존재는 바로 그러한 틀이나 형식의 한계와 관련을 가진다.

결혼 담론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새식구로서 여성의 자질은 결혼담에서 확인 가능한 여성의 자질과 다르지 않다. 결혼 담론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새식구로서 여성을 규정하는 자질이 결혼담의 경우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관상학, 『계녀서』 등 다양한 양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식구로서 여성이 가져야할 자질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내용을 가진다. 반면 새식구로서 남성이 가져야할 자질에 대해 언급하는 텍스트는 찾기 힘들다.

새식구로서 남성의 자질을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은 여성에 비해 발달하지 않았다. 결국 새식구로서 남성의 자질은 일반적으로 소통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혼 생활에 알맞은 여성의 자질, 즉 기술과 노동력 등을 겸비한 생활력이 있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가족의 욕구도 배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등등에 대해서 동시대의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새식구로서 남성의 자질에 대해 소통 가능한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성의 자질이 지나치게 추상화·총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식구로서 남성의 자질은 왜 그런 방식으로 생각되었을까? 결혼담에 나타나는 새식구로서 남성의 자질은 지혜롭다거나 정승이 될 만하거나 특별한 식견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런 남성의 자질은 결혼 대상자가 아니라,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그가 맡을 역할을 염두에 두고 판단된다.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을 사회에서의 역할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새식구로서의 남성은 사회인으로 판단되었던 것이지 가족 구성원으로 판단되었던 것이 아니다. 이는 치국을 잘 할 남자는 치가도 잘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대사회적인 기준이 새식구를 선택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다보니 결국 결혼 생활에 알맞은

남성의 자질에 대해서 별개의 논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좋은 남편감이나 사위감은 자상해야 한다거나, 아들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거나 등의 논의는 소통되지 않았으며, 소통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과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은 다를 수 있다. 조선시대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대부분의 양반 남성들은 사회의 구성원이라기보다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전통 사회라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과 사회 생활에 필요한 남성의 자질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식구로서 남성의 자질에 대한 판단은 대사회적인 시각으로 대체되었다. 남성을 가족으로 보는 시각의 부재로 인해, 새식구로서 남성은 가족 내적 역할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은 설화나 담론 안에서도 나타날 것이며, 부부상, 부부 관계, 가족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 기준들은 하루아침에 마련된 것이 아니다. 규범적으로 인정되는 남성상과 여성상의 차이는 결혼식을 비롯해서, 삶의 다양한 지점들에서 마련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지점들을 분절해내고, 각각 적용되는 규율들을 통일된 약호 속에서 읽어내려는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1-6권,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8.  
 『한국구비문학대계』  
 서거정, 『태평한화골계전』 (박경신 역, 『태평한화골계전』, 국학자료연구원, 1998).  
 『기문총화』 (김동욱 역, 아세아 문화사, 1999).  
 『계서야담』 (이희준 편찬, 유희수·이은숙 역,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 『증보산림경제』 (유중임 저, 『증보산림경제』, 2권 농촌진흥청, 2003.).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저, 김희경 역, 『조선의 점복과 예언』, 동문선, 1990.  
이석훈 엮음, 『계녀서』, 『한국의 여혼』, 대원사, 1990.
- 강성숙, <바보사위> 설화 연구-바보 우행(愚行)의 의미와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고전여성문학연구』 13집, 고전여성문학회, 2006.
- 국사편찬위 편,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동아, 2005.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09.
- 김신연, 「궁중과 사대부가의 혼례 풍속 비교 연구」, 『문명연지』 6권 3호, 한국문명학회, 2005.
- 김제란, 중국철학에서의 ‘체용(體用) 개념의 변천 과정: 체용의 불교적 이해와 유학적 이해」, 『시대와 철학』 17권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 김종명, 『한국의 혼속연구』, 대성문화사, 1981.
- 김희정, 「며느리 설화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2000.
- 박현숙, 「설화에 나타난 ‘새식구 들이기’에 대한 두 가지 시선: <며느리 고르기>와 <사위 고르기> 설화의 비교」, 한국구비문학회, 『한국구비문학연구』, 30집, 2010.
- 손문숙, 「며느리 설화의 서술 방식과 서사 요소」, 『동남어문논집』, 14집, 동남어문학회, 2002.
- 손문숙, 「며느리 설화의 여성주의적 양상」, 동남어문학회, 『동남어문논집』, 19집, 2005.
- 신혜성, 한국과 중국의 전통혼례복식에 관한 연구: 18~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여대 의류직물과, 박사학위논문, 2006.
- 심우장, 「거짓말 딜레마와 이야기의 역설」,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안병태, 『의식주, 관혼상제, 민속이론』, 교문사, 1988.
- 이광규, 「조선후기 혼인 습속과 혼례 절차」, 『역사비평』 25호, 역사문제연구소, 1994.
- 이명자·박정숙, 한국의 혼례문화와 혼례복식의 특성, 『한국의복』 8권 3호, 한복문화학회, 2005.
- 이수자, 설화에 나타난 ‘버들잎 화소’의 서사적 기능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2권,

- 한국구비문학회, 1995.
- 이순아, 「사위설화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순홍, 『한국전통혼인고』, 학연문화사, 1992.
-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출가의인’ 담론과 여성의 정체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 정복희, 「연지화장 연구: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충남대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기획, 1998.
- 정성희, 『조선의 색슈얼리티: 개정판』, 가람기획, 2009.
- 정승근, 「전통혼인음식에 관한 연구: 폐백·이바지 음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생활과학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정중수, 「혼례의 절차 및 의미에 대한 고찰」, 『민속학연구』 6호, 한국민속학회, 1999.
- 조은희 「고전 여성양용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 박사학위 논문, 2005.
- 최기숙, 이인(異人), 소수 문화, 그 차별적 전략과 동화의 처세술, 『한국문화연구』 3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2.
- 최운식, 「〈며느리감 고르기 설화〉에 나타난 부자 며느리의 조건과 경제의식」, 『한국민속학』 제41집, 한국민속학회, 2005.
- 하은하, 「〈거짓말 세 마디〉의 서사적 특성과 그 문학치료적 효용」, 『고전문학과 교육』, 제13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한양하, 「〈도량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혼사장애와 시련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회, 30집, 2010.

## ABSTRACT

Ideal Women and Men in Traditional Stories  
and Discourses on Marriage

Ryu, Jeong-Wol

This paper studies about ideal gender types which are expressed in traditional marriage. For the purpose I focus on marriage stories and discourses. In Korean old stories, people test to choose new family members(intentional test stories). Test for women is objective but for men subjective.

In other stories, father or male relative meets a man or a woman, who becomes their new members later(accidental encounter stories). When he meets accidentally a young man or woman, he finds one good feature of him(her) and determine to marry him(her) with his daughter(son). At this moment, female's feature would be likely to be judged by one concrete behavior but male's feature to be judged by an abstract aspect. In the latter the subject of judgement has "*Jinjigam*(*知人之鑑*), *good judgment of human nature*" is believed that one thing about a woman can say a lot about the rest of her. but one thing about a man can say nothing about the rest of him.

In the discourses about marriage, a lot of standards to be applied for bride, phrenology for fecundity, writings to train daughters(*Gnyeseo* 戒女書). But there are no phrenology or writings for groom. This imbalance of information to choose women and men means the difference of ideal gender types in traditional marriage. After that, I read the imbalance with the code of substance and function and explain the reason why the information on ideal male feature is not enough in the discourse.

**Key Words** ideal women, ideal men, test, feature, stories about marriage, discourses about marriage, substance, function, *Jinjigam*[*知人之鑑*].

논문투고일	: 2011. 10. 15
심사완료일	: 2011. 11. 30
게재확정일	: 2011. 12. 05